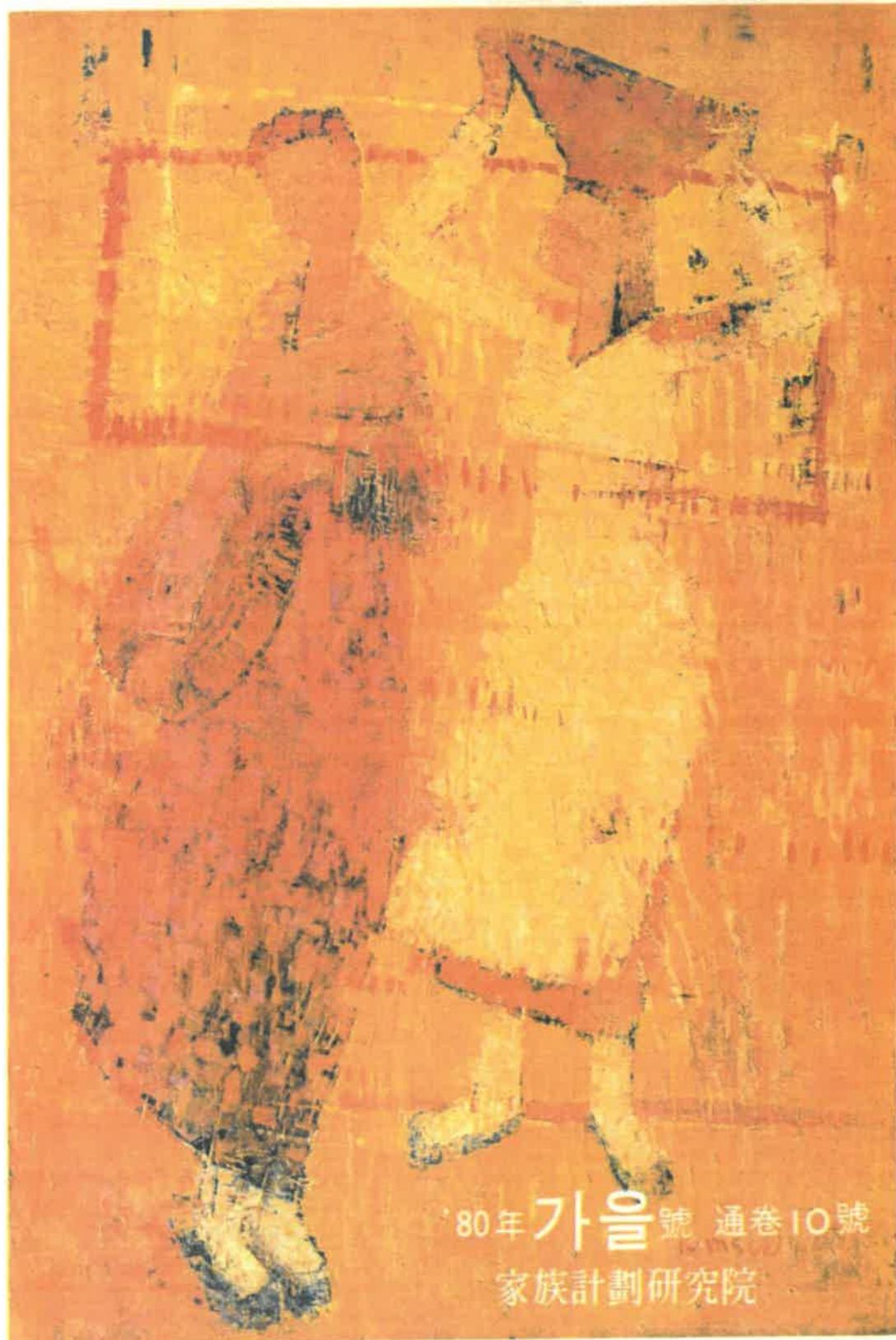


Population Information

人口情報

政策決定者·行政家·研究者·實務者를 위한 討論의 廣場



80年 가을號 通卷10號
家族計劃研究院



●表紙説明 / 全興洙作「길동무」

연분홍빛 치마 저고리에 바구니를 얹에 걸 쳐녀와 흰 저고리 흰 앞치마를 한 처녀가 나란히 대향해 있는 모습이다. 외쪽의 처녀는 약간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나리를 반듯이 모은 나소꽃한 자태로 서 있는 반면, 오른 쪽 처녀는 일 것을 향해 벌려 올린 팔과 한자도 벌인 다리의 친밀한 자태가 인상적이다.

이 그림의 작가 金興洙는 1919년 咸南咸興 출신으로 日本東京美術學校를 나왔으며 50년대 이리로 전너가 그곳에서 활동한 활동을 하였다. 그의 황토색이 강한 모티브와 드라마틱한 기법의 작품은 바리하단에서도 주목을 모았다. 60년 후에 귀국하여 개인전을 가졌으며 그해 5月文藝賞을 수상하였다.

人口情報은 현재 이 분야의 世界的 関心事인 「研究結果의 活用」問題에 기여코자 시도되었으며, 국내외에서 1次 研究된 内容을 利用者 특히 中間管理層인 行政家와 訓練 및 一線 事業担当者를 위해 새로 再生産 表現해본 매개체이다.

人間行動의 變化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人間生活의 向上을 目的으로 삼고 있는 家族計劃事業은 避妊普及 및 啓蒙教育活動과 支援事業으로서 研究評価와 訓練事業 등 광범위한 學問領域과 관련자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政策과 研究, 研究와 研究, 研究와 実務등에서 発生할 수 있는 「갭」을 연결시켜 줄 架橋役割이 다른 어느 事業보다 절실히 要求되고 있어 본 책자는 이러한 要求에 多少라도 공헌하고자 努力할 것이다. 表紙의 小題目에 討論의 広場이라 붙여 본것도 많은 독자와 관심있는 분들의 批評과 성의있는 참여가 우리가 期待하는 成果를 거둘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人口情報 1980年 가을號 통권10호

인쇄일 : 1980년 10월 26일

발행일 : 1980년 10월 30일

발행인 : 金 鐸

발행처 : 家族計劃研究院

은평구 녹번동 115 388-8003-7

주소 : (株) 東進文化社 (73-4175)

人口 情報

'80년 가을호

이달의 焦點

研究評價 活動과 관련된 問題 … 2

① 研究結果의 政策反映型 活用을 위한 方案

② 研究事業을 위한 科學的인 事業計劃樹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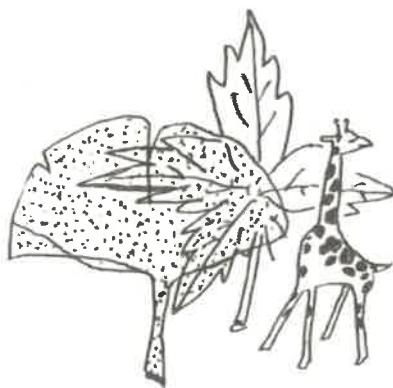
市·道別 家族計劃 事業實績… 20

家族計劃 토막소식… 24

人口 및 家族計劃 관련 分野의 研究課題 紹介… 29

人口 및 家族計劃 主要 統計… 30

行事日誌 … 34



家族計劃研究院이 每年 實施하는 事業 綜合 診斷結果에
의해 導出된 事業遂行上의 問題點을 分野別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子女 價值觀과 關聯된 問題

- ① 經濟社會發展에 의한 出產低下效果의 限界性
- ② 少子女 動機形成에 필요한 社會文化的 環境造成
- ③ 男兒選好觀念을 비롯한 傳統的 子女價值觀

● 事業組織 行政管理上의 問題

- ① 高은 事業要求度와 낮은 서서비스
- ② 事業組織의 弱點성
- ③ 地域社會內 連繫關係

● 避姪受容과 關聯된 問題

- ① 出產年齡과 빠른 出產速度
- ② 出產工具과 母子保健

● 避姪效果와 出產力

- ① 避姪의 繼續使用 特性
- ② 避姪目的과 關聯된 避姪效果
- ③ 우리나라 婦人의 避姪使用上의 問題

● 統合事業의 實際

- ① 統合에 必要한 構造와 協力體制
- ② 特殊事業과 一般事業간의 役割統合의 難點
- ③ 一線執行단계의 統合效果

“人口情報”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政策建議 및 研究課題 形態로 連載할 방침이다.

● 自費負擔 家族計劃事業 擴大支援을 위한 問題

自費負擔 家族計劃事業의 示範研究結果

- ① 避姪受容面에서의 事業成果
- ② 避姪效果面에서의 事業成果

● 避姪普及網의 擴大方案

① 非診療的 避姪普及體系의 必要性

- ② 地域社會 諒及과 商業網을 통한 避姪普及體系의 差異點과 事業 實態
- ③ 地域社會 諒及과 商業網을 통한 避姪普及體系의 問題點

● 弘報啓蒙活動의 事業效果를 높이기 위한 問題

① 價値觀 등 態度變容을 일으킬 수 있는 弘報戰略

- ② 意圖的이고 持續性있는 弘報活動을 위한 事業經營改善—研究結果의 活用
- ③ 正確한 對象者 特性 分析에 의한 弘報物 製作普及方案

● 各級 訓練事業遂行에 따른 問題

① 直接 事業從事者에 대한 訓練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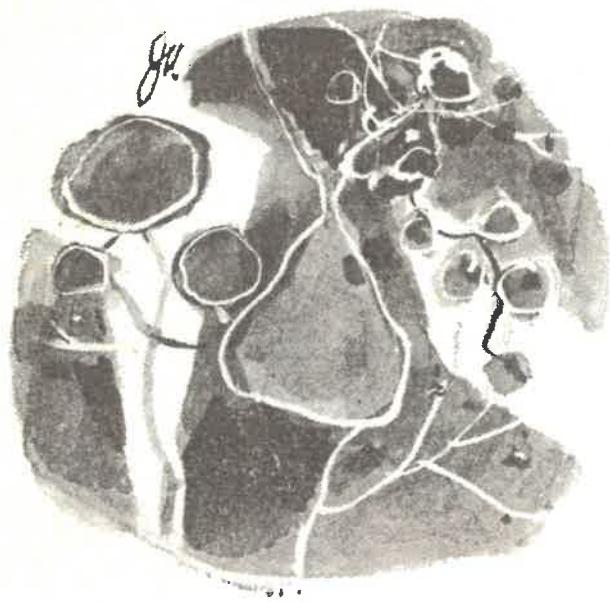
- ② 行政機關 關聯機關 要員 및 各級 訓練機關 講師 訓練의 強化

● 研究評價活動에 關聯된 問題

① 研究結果의 政策反映 및 活用을 针對 方案

- ② 研究事業을 针對 科學的인 事業計劃樹立

研究評價 活動과 관련된 問題



새로운 制度의 運營計劃의 樹立이나 政策決定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된 要因들이 어떤 因果關係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情報를 필요로 하며, 이같은 필요성에서 가장合理的的方法으로 가장 說得力 있는 최선의 情報나 知識을 얻어 대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이 곧 研究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事業計劃樹立이나 중요한 政策決定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문적인 理論과 보편타당한 實제자료의 뒷받침에서 研究는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런데 事業計劃 초기에는 이와같이 政策樹立의 바탕을 이룰 研究評價活動을 요구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研究는 研究대로 政策은 政策대로 상호 보완없이 평행선을 달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研究評價者와 事業決定者나 管理者는 계속적으로 밀접한 協助調整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研究結果가 政策決定 및 事業活動으로 이용될 것이며 또한 事業의 運營過程에서의 문제가 다시 적절한 研究課題로 설정,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研究評價의 結果, 知識 情報의 活用 과정 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圖 1과 같다. 情報는 情報源으로 부터 情報利用者에게로 흐르게 마련인데 情報나 知識은 우선 研究活動의 結果로 나타난다. 情報나 知識은 세미나나 회의 등의 중간전달 수단이나 方法을 통하여 政策決定者에게 전달되고 政策決定者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얻어진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로 하여 政策을 결정하고 결정된 政策은 다시 최일선 事業者에게 전달되어 遂行된다. 최일선 事業遂行者는 또한 事業遂行上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政策決定者에게 전달하여 새로운 政策樹立이나 기준 정책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소위 「휘드백」(Feed back)이 성립된다. 정책 결정자와 事業遂行者간의 빈번한 환류 기능은 새롭고 효율적인 研究評價活動 方向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 要因이 되고 있다.

家族計劃 分野에서도 이같은 研究評價活動과 政策樹立 및 事業遂行간의 相互 協助의 인 밀접한 관계가 요구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962年 政府가 家族計劃事業을 國家施策 으로 채택한 아래 事業推進과 아울러 관련된 분야의 研究活動 역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研究評價의 結果가 家族計劃事業의 方向이나 内容을 革新的으로 변화시키는데 完全히 利用되어 왔다는 點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모든 研究가 政策에 즉시 기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家族計劃 分野에서 저럼 國家的 要求에 전적으로 目標를 둔 연구는 長短期的으로 보아 반드시 政策에 反映될 수 있도록 研究 計劃書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家族計劃에 있어 研究評價 結果의 實際的 利用 過程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밝혀보며 나아가서는 效果的인 家族計劃 事業의 政策樹立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다 필요한 研究課題計劃을 수립하는데 요구되는 條件들이 무엇인가를 綜合·整理事여 提示하고자 한다.

圖 1. 研究利用의 개념적 模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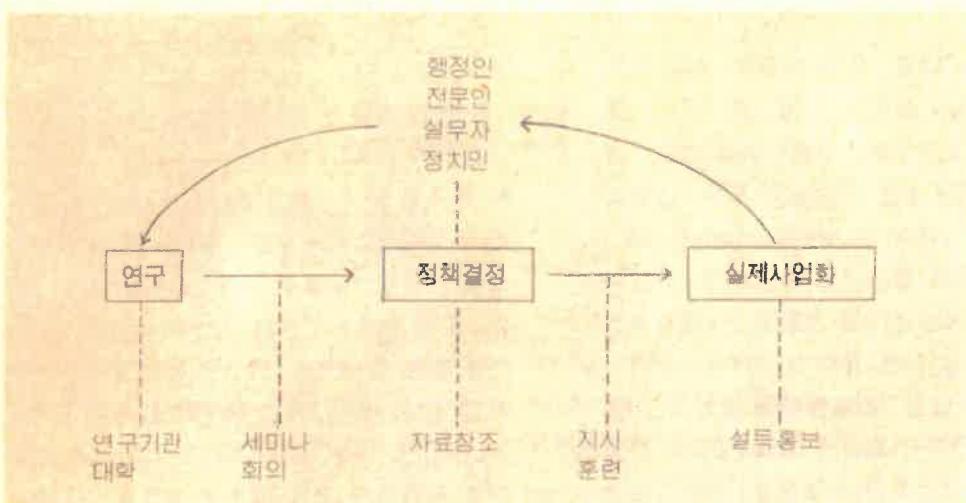


圖 2. 情報 活用 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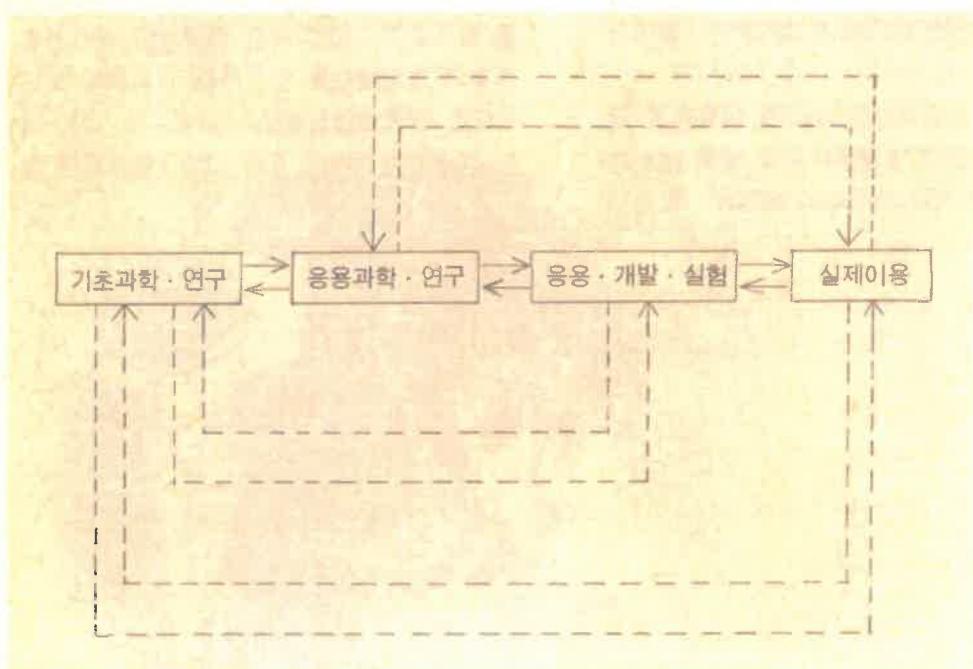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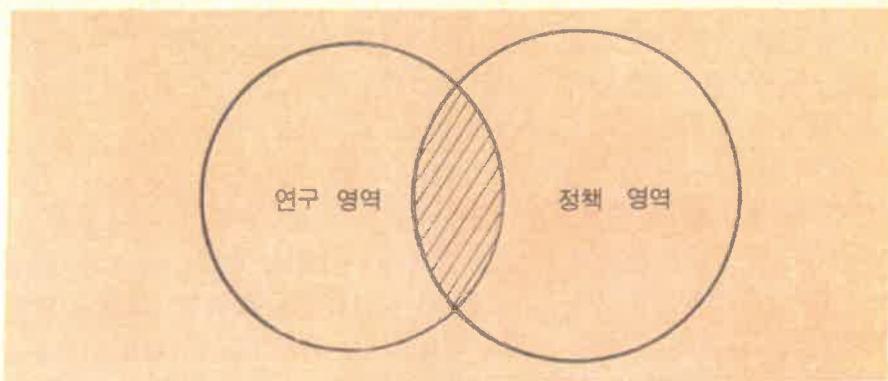


圖 3. 情報의 活用 범위



問題 1

研究結果의 政策反映 및 活用을 위한 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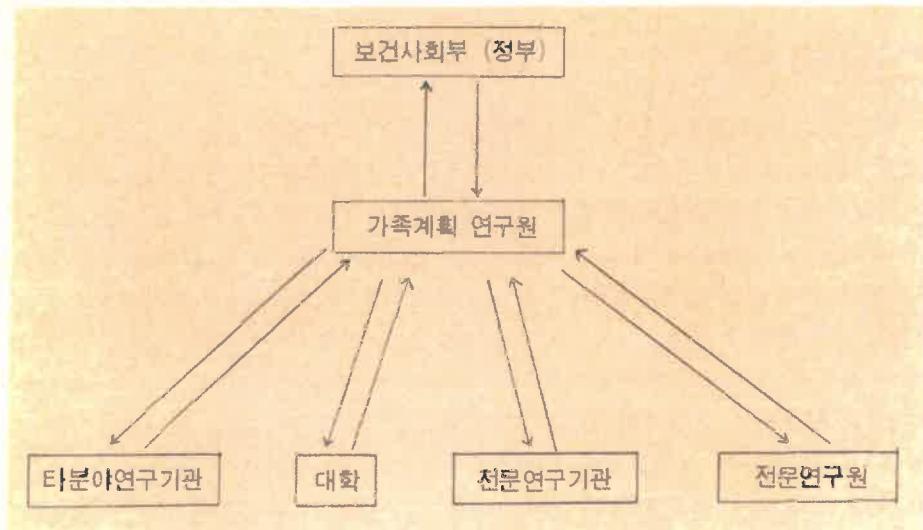
家族計劃에 관한 研究結果가 實用的으로 利用되기 위하여서는 利用者가 活用할 수 있도록 家族計劃과 관련된 各 研究結果를 綜合하여 再生產하는 過程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利用者の 입장에서 쉽게 理解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가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研究者와 政策決定者나 事業遂行者는 늘 밀접한 관계를 갖고 公式的 회의나 또는 非公式的인 모임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研究와 政策

研究領域과 政策領域 또는 事業遂行파의 관계는 理論과 實際의 관계와 같이相互補完의in 것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갈등적인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 圖3에 제시된 바와 같이 研究와 政策은 각기 별개의 분야이면서 共通의in 부분을 갖게 되는데 이 共通의in 부분이 바로 知識, 情報의 活用부분이며 이부분의 扩大나 開發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사실 研究領域은 기초과학, 기초연구인 人文科學, 순수科學이 있으며 이 기초과학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實際世界에 보다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應用研究가 이루어지고 그 研究結果는 다시 實際利用할 수 있게 가공되고 開發되어 政策的으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圖2 참조) 뿐만 아니라 研究世界에서 實際world로 흘러간 情報는 환류과정(Feed back)으로서 다시 研究world에 영향을 주는 二元的인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研究者와 政策立案者는 相對에 대하여 協助的이고 相互 滿足스러운 關係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研究者와 研究結果를 利用하는 政策遂行者간의 特性으로 보아 양측면에서 점토할 수 있다. 우선 利用者인 事業遂行者 또는 政策立案者 입장에서는 어떤 연구의 결과이던지 사업 수행상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직접적인 知識이나 解決方案이 제공되기를 요구한다. 이 知識의 내용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정리된 논리, 간접적인 요인보다는 직접적인 요인설명, 그리고 연역적인 접근방안 보다는 귀납적인 접근방안을 더 요구하고 있다. 한편 研究者는 일반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微視的 方案보다는 巨視的 方案을, 部分의in 論理보다는 總體의in 論理, 短期의in 思考보다는 長期의in 思考에, 그리고 現實보다는 未來指向의in 예측 기반을 둔 해결방안 모색에 重點的으로 焦點을 맞춘다.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는 이와같이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관계로 자연히 상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本質의in 일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研究者와 政策者간의相互 불일치된 기대와 요구는 情報 活用 效果 측면에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요인인 것이다. 물론 研究者와 政策者는 각기 생각하는바와 가치를 두는바가 다르므로 인하여 社會의 距離感이나 認識의 葛藤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야기 한대로 사실 研究者는 實際보다는 理論과 세련된 方法論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研究者들이 提議한 建議 또한 실제로 政策的 人力과 機算의 고려나 채택 가능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實用性과 適實性이 없는 예가 많다 하겠다. 또한 政策者들은 理論에 근거한 기본적인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보다는 당장 손쉽게 政策決定에서 利用할 수 있는 資料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圖4. 人口 및 家族計劃 관련 研究活動 機能的 制度的 관계



이상과 같은 研究者와 政策決定者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研究者는 政策立案者나 利用者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제로 현실에 맞는 문제해결 방법이나 이론 정립이 필요하며 또한 政策立案者が 알기 쉽게 一般的인 用語로 表記하여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利用者들은 정확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研究結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서 차츰 상호 이해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정보흐름 체계 속에서의 家族計劃研究院

研究와 政策사이에서의 情報나 知識의 活用 및 處理의 体系가 家族計劃 分野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의 家族計劃研究院의 위치는 어떠하며, 또한 보다 成功的인 情報 活用 및 研究結果의 政策的反映을 위한 문제점 및 解決방안은 무엇인가?

人口 및 家族計劃과 관련된 研究·評價 活用을 하는 機關으로는 우선 家族計劃研究院이 있고 이외에도 各大學의 附設 研究所와 專門研究機關을 들 수 있다. 人口 및 家族計劃 分野는 政府의 主導的 事業遂行과 함께 소개되고 발전되어 온 分野이다. 따라서 관련된 研究도 궁극적으로는 政府事業에 기여하는 方向으로 設定되어야 하며 더욱이 政府 투자기관의 성격으로 있는 家族計劃 研究院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研究機關의 研究나 評價 結果는 情報로서 政府의 家族計劃事業을 위한 政策的決定에 있어서 주요한 資料로서 活用되게 된다. 그러나 理論上 이같이 명백한 情報의 處理 体系가 實際에 있어서 그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는 사람에 따라 의견을 달리한다.

研究와 政策의 중간자 位置에서 學問領域에서 生產된 知識과 情報를 事業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機能이 필요한데 누가 어떤 方法으로 이 連繫活動을 하여 줄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政府나 또는 政府에 의해 위임받은 機關이나 組織에 의해 이 知識·情報의 流通 機能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家族計劃의 경우에는 政府로부터 위임받은 機關인 家族計劃研究院이 研究活動 이외에도 研究者와 政策立案者の 중간위치에서서 情報活用을 위한 다리 구실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家族計劃研究院은 研究活動을 遂行하면서도 다른 人口 및 家族計劃 관련 研究機關과는 그 특성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면 圖4 와 같다.

圖4는 現實的인 要求를 바탕으로 政府, 家族計劃研究院 그리고 기타 研究機關과의 協助 關係가 강화됨으로써 政府家族計劃事業遂行이 成功的으로 發展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研究結果의 活用面에서 보면 대 表1

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家族計劃에 관해서 많은 政策立案者들이 研究機關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구기관이 情報活用에 있어 지니는 비중이 큰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尚後事業의 비약적인 發展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利用이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면 知識, 情報의 政策的反映을 위한 活用機能으로서의 家族計劃研究院의 사업은 무엇인가? 중간자로서 家族計劃研究院의 役割을 보면 政策反映方法으로 ①研究를 하여 그 報告書를 통해 建議하는 方式, ②「세미나」나 會議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情報를 전달하는 方法과 ③長期的 政策樹立過程에 직접 참여하는 方法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家族計劃研究院은 研究結果를 일정한 형태의 報告書로 발간하면서 政策反映을 위한 중요 結果와 建議事項은 따로 要約하여 關係當局에 전달 利用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인쇄물, 보고서 등을 통한 이 建議는 대부분 研究者の 일방적 의견이기 때문에 政策決定者나 사업담당자가 요구하는 정도에 어느정도 만족을 주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方法의으로 보아 研究 報告書를 통한 정책반영의 노력보다 結果反映에 보다 效率의인 것은 會議나 세미나등의 모임을 통해 政策決定者와 직접 접촉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경우에는 研究結果가 대개의 경우 活用할 수 있는 형태로 종합되어 개발, 가공처리되기 때문에 報告書보다는 쉽게 政策立案者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직접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政策反映에 관한 政策立案者의 反應을 들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家族計劃研究院은 그러므로 行政과 研究를 아는 媒介者の 役割을 할 수 있는 人力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자료 활용이나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공식적인 活用制度가 요구되는 바이다. 그 다음으로 들수 있는 것은 政策決定 過程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研究結果를反映시키는 方法인데 政策樹立을 위한 情報活用에 가장 效果가 큰 方法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실 政策決定에 있어서 研究機關의 의사가 어느 程度 반영될 수 있는지는 複雜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1977년부터 1979년간의 가족계획 연구결과가 사업수립에서 고려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表2와 같다.

政策的反映을 위한 情報의 活用이외에도 研究結果는 實務者의 事業遂行에 있어서도 活用되는 것이理想的이다. 家族計劃研究院에서는 實務者나 一般行政家를 위해서도 세미나 訓練이나 冊字를 통해 研究結果가 실제로 利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研究結果의 效率의in 活用 및 보다 廣範圍한 普及에 관련된 문제점을 家族計劃研究院의 경험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研究結果의 活用에 대해서는 研究目的 내지 内容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같다. 따라서 研究 구상으로부터 報告書 作成에 이르기까지 연구자 자신의 흥미 본위에서 주제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研究內容의

表 1. 政策立案者의 情報求得 經路百分率

경로	백분비
교육기관의 훈련	22.2
업무자와의 접촉	19.8
연구기관 자료	41.3
관계기관의 요청	16.7
계	100.0

表 2. 家族計劃 연구결과가 활용되는 주제

정책방향	자비부담지역 확대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사업의 종합 지역사회 개발사업과의 연계관계 확립
사업추진전략	지역 및 사회계층에 따른 선별적 사업 농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 사업 강화 도시이입 인구에 대한 중점적 사업전개 지역사회 단위별 피임 서비스 거점 확보 및 활용
조직운영	보건요원의 다목적 활용 및 지도 감독 기능 강화 종합 목표량 제도 채택 운영 효율화
피임보급	수요공급의 유통체계 확립 사후관리 제도화
계몽교육	대상자에 따른 선별적 계몽전략 홍보매체 활용확대
사업지원	인구교육 확대 지역사회 여론지도자 훈련 자녀규범 변화를 위한 사회 정책적 방안 모색

方向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活用이 보편 타당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② 연구결과를 대하는 政策立案者는 지나치게 빨리 實用性을 요구한 나머지 실제로 단기적인 목적에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研究結果 活用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수립계획을 다소 등한시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사료된다.

③ 研究結果 活用에 관계되는 媒介組織과 專門人力의 능동적인 活用 및 이들에 대한 利用者의 적극적인 활용성이 아쉽다. 예로서 家族計劃研究院이 媒介者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를 볼 때 이 機關 内部의 專門人力 및 機能의 強化는



연구자와 정책수립자는 늘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공식·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자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研究結果의 效率性과 活用性을 높일 수 있는 첨경이라 하겠다.

④ 政策立案者뿐만 아니라 一線 實務者를 위한 情報 活用 및 普及이 약하므로 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政策建議

보다 活潑한 情報의 活用 및 研究結果의 效率的인 政策的 反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研究管理体系의 改善이 요구된다.

家族計劃分野처럼 政策的 立案에 관련된 研究는 研究問題 選定 과정에서 부터 政策實務陣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研究推進過程에서도 수시로 참여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政策研究의 現實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학문분야를 동원하는 綜合學問의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 家族計劃과 같이 사회과학 및 의학등 많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② 研究要員은 새로운 計劃이나 문제발견을 위한 기초 研究와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革新的인 体制 도입을 위한 개발 研究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접근方向에서 연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③ 意思疎通体系와 人間關係의 改善이 요구된다.

研究報告書가 지나치게 學術的 專門的 用語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意思疎通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세미나, 會議, 토론회, 학술발표회 등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實務者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研究者는 實務者의 입장에서 問題를 의식하고 解決방안을 찾아보려는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政策實務者는 研究者の 입장에서 그 학문에 대한 순수성, 명예등을 이해하며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우기 정부산하기관으로서의 研究院인 경우 이같은 政府 관리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研究要員을 관리 또는 行政하는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대해주는 것은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자와 정책입안자간의 人間關係를 개선시키고 나아가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큰 밀거름이 되리라 사료된다. 그 무엇보다도 研究者와 政策立案者の 相互理解와 尊重 자세는 研究의 추진 및 그 結果 活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問題2.

研究事業을 위한 科學的인 事業計劃樹立

政府主導의 家族計劃事業 체제 하에서의 研究方向과 分野設定은 長短期事業計劃에 부합되는 研究計劃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專門研究者를 위한 理論的 知識提供보다는 事業遂行者나 政策立案者등 利用者를 위한 問題解決方法 제시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研究計劃의 效率的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광범위한 研究 機關 및 研究人力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家族計劃 事業遂行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政府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投資로서 최대한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事業遂行에 필요한 事業設計나 事業戰略은 무엇이나 또 事業遂行의 效果로서 實踐率 및 出產力에 어떤 變化가 있었느냐 등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연구가 行해지는 것이 정부주도적인 경우의 특징이라 하겠다.

韓國 家族計劃 관련 分野 研究도 政府의 家族計劃事業 채택과 함께 시작된 것이고 따라서 研究內容도 이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研究가 단순한 學問的 關心事나 荒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實用的인 研究目的, 즉 政府家族計劃事業의 개선이나 發展에 기여하는 方向으로 행해져 왔다고 하겠다.

表3은 그 동안 行해진 家族計劃 關聯 분야의 研究內容을 제시한 것인데 많은 비중이 人口抑制 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두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사업 초기에는 避妊對象集團의 出產力 및 家族計劃 特性 등 事業에 필요한 기초적 통계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연구가 행해졌고 최근에 와서는 事業組織과 활동에 관한 연구와 價值觀이나 男兒選好 思想 등과 관련된 教育 및 制度的 측면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둔 것이다. 이는 事業遂行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름에 따라 수용자의 입장에서 心理的 측면까지도 고려해 넣음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研究가 政策이나 事業遂行에 기여한바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研究事業을 遂行해 오면서 家族計劃研究에 있어서 문제점 또는 批判點으로 등장되고 있는 것은 첫째, 研究課題 選定에 있어서의 편중성이다. 家族計劃만큼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합유하고 있는 分野도 드물것인데 그동안 행하여진 研究는 주로 어느 국소적인 분야에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또 다른 분야는 소홀하게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은 초창기의 많은 家族計劃研究가 外國기관의 재정적 원조를 얻어 수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財政的인 支援 단체가 어느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그 團體의 기호가 작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두번째 비판은 研究가 一般的인 실태만을 서술하는데 그쳤을뿐 문제 중심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家族計劃研究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業經營의 측면을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음으로해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세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時宜性이다. 家族計劃研究院의 경우 대부분의 研究나 評價 事業은 정부 회계년도에 따라 1年을 단위로 하고 있다. 즉 年初에 시작하여 年末에 최종보고서를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必要性을 느낀지 1年後에나 研究結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時限性을 넓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事業 중간에 그 結果가 政策에 반영되거나 活用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점에서의 활발한 機能이 아쉽다고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의 研究는 어떻게 어떤 方向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인가?

向後 研究事業은 크게 長期研究事業과 短期研究事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短期的인 研究와 長期的인 研究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서로 상충되는 계연을 가능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表 3. 연구 영역별 연구보고서

연구영역	1960~1970	1971~1975	1976~1978
인구성장과 사회경제 보건 및 환경	0	3	6
생식생리 및 피임법	1	1	8
인구구성·사망·이동	2	2	3
피임대상·집단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특성	23	55	19
가족계획사업·조작 및 활동	3	42	27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 및 법적 제도적측면	2	4	15
기 타	1	6	3



과학적인 연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분야의 광범위한 연구인력 참여가 요구된다.

먼저 長期研究活動을 보자. 長期研究는 길 안목에서 家族計劃事業의 進路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事業遂行上의 문제해결이나 改善을 위한 短期研究와는 다르다. 政府는 長期 經濟社會開發計劃이 끝나는 1991年的 人口를 4,500 萬으로 人口增加率을 1.3 퍼센트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研究 또는 이 計劃에 일맞는 것이어야 하겠다. 따라서 연구사업은 社會·經濟發展과 관련된 人口構造의 变動, 人口資質의 改善, 새로운 避妊法開發 등 人口調節政策과 관련된 광범위한 범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社會經濟, 文化, 政治, 醫學 등 많은 分野의 專門人の 적극 참여가 요구되는 바이다.

두번째로 短期研究活動으로서의 事業計劃樹立인데 短期研究는 대략 1年 정도의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事業遂行에서 필요한 事業設計, 전략 및 개발과 관련된 研究들이다. 이는 家族計劃研究院 등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연구로서 즉각적인 結果의 活用이나 普及이 기대되는 내용들이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수정하며 새로운 사업의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研究를 나열하면 家族計劃弘報啓蒙活動에 관한 研究, 月末實績報告, 쿠온자료 등 各種 事業통계 자료의 분석, 避妊受容 및 事業對象者에 대한 研究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短期研究는 現在 家族計劃研究院이 效率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政策建議

一般的으로 研究結果의 活用이 주요 문제로 되고 있는 政府支援 研究事業인 家族計劃事業의 短期研究 方向 設定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專門研究者 기호에 맞는 理論的인 研究나 그 知識의 제공보다는 事業遂行者, 政策立案者 등 利用者들을 위한 問題解決方法의 제시가 중요하다.

② 理論의 증명이나 事實의 재확인 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研究가 바람직하다.

③ 신속한 연구결과 活用을 위해서는 長期的인 기초연구보다는 단기적인 應用研究가 바람직하다. 장기계획에 사용될 기초연구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일어나는 時事性을 띤 구체적인 주제의 단기적인 연구가 보다 빨리 환류(Feed back)되어 活用할 수 있어 效率性이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장기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초 연구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

④ 새로운 假定에 의한 연구보다는 과거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중심의 연구가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 家族計劃研究院, 知識 情報의 活用, 1978.
- 家族計劃研究院, 情報 活用에 관한 2次 세미나 결과, 1979(未發刊).
- Havelock, Ronald G., *Planning for Innovation through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CRUSK, 1971.
- Rogers, Everett, *Strategies for Linking Research and Use*, Paper Presented at EWC1 Conference.
- Maye, W. Freumann, *Organizational Structure in Family Planning Programs,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 ed. by B. Berelson, Chicago Univ. Press, 1961.

市·道別 家族計劃 事業實績

家族計劃事業은 方法別로 볼 때 루우프, 정관, 난관은 年間 目標量을 정해 놓고 있으며, 막는피임약과 콘돔은 月 目標量을 정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 목표 진도율은 전자가 50퍼센트이며 후자는 100퍼센트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1980년도 상반기 가족계획 사업 실적을 루우프가 50퍼센트, 막는피임약이 101퍼센트의 진도율로서 목표에 도달했을뿐 다른 避姦法은 목표에 활짝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관수술은 36.7퍼센트의 달성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에서의 집중적인 노력 투입이 요구된다.

表2·3·4·5·6은 市·道의 事業實績을 避姦方法別로 제시한 것이다. 전제적으로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역은 경기, 충북, 경북이며 제주, 부산, 충남은 두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사업실적을 기초로 한 家族計劃研究院 현지 진단결과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지도감독이 사업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보건소장, 담당계장등 사업관리자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지도감독 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는 바이다.

表7은 과거 출산력저하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월경조절술의 시술실적이다.

表1. 1980년도 상반기 가족계획 사업실적

피 입 방 법	목 표량	상반기 실적	진도율 (%)
루 우 프	200,000	99,804	50.0
정 관	40,000	14,670	36.7
난 관	220,000	100,727	45.8
콘 드*	70,000	60,007	85.7
막 는 피 임 약*	100,000	101,092	101.1

* 원정관

表2. 1980년도 상반기 먹는피임약 실적

지역	목표량	상월반평기금	진도율
서울	14,000	13,063	93.3
부산	6,000	5,965	99.4
경기	13,000	13,019	100.1
강원	7,000	6,667	95.2
충북	5,000	5,585	111.7
충남	9,000	9,160	101.8
전북	7,000	6,940	99.1
전남	11,000	12,490	113.5
경북	16,000	16,681	104.3
경남	10,000	10,330	103.3
제주	2,000	1,188	59.4
계	100,000	101,092	101.1

表3. 1980년도 상반기 콘돔실적

지역	목표량	상월반평기금	진도율
서울	10,000	7,506	75.1
부산	4,000	2,252	56.3
경기	8,000	7,984	99.8
강원	5,000	4,755	95.1
충북	4,000	2,896	72.4
충남	7,000	5,813	83.0
전북	5,000	4,971	99.4
전남	9,000	5,375	59.7
경북	10,000	10,417	104.2
경남	7,000	7,400	105.7
제주	1,000	634	63.4
계	70,000	60,007	85.7

表 4. 1980년 상반기 루우프시술 실적

지역	목표량	상실	반기적	진도율
서부	26,000	8,467	32.6	
경기	14,000	6,109	43.6	
강원	22,000	11,820	53.7	
충북	12,000	5,347	44.6	
충남	11,000	5,706	51.9	
전북	17,000	7,804	45.9	
전남	18,000	10,656	59.2	
경북	23,000	14,318	62.3	
경남	31,000	16,764	54.1	
제주	23,000	11,265	49.0	
계	3,000	1,548	51.6	
	200,000	99,804	49.9	

表 5. 1980년도 상반기 정관시술 실적

지역	목표량	상실	반기적	진도율
서부	11,700	4,790	40.9	
경기	2,900	859	29.6	
강원	5,000	2,774	55.5	
충북	1,700	369	21.7	
충남	1,700	866	50.9	
전북	2,700	663	24.6	
전남	2,400	488	20.3	
경북	3,900	1,222	31.3	
경남	4,300	1,632	38.0	
제주	3,300	899	27.2	
계	400	108	27.0	
	40,000	14,670	36.7	

表 6. 1980년도 상반기 난관시술 실적

지역	목표량	상실	반기적	진도율
서울	55,000	23,404	42.6	
부산	22,000	8,533	38.8	
경기	31,000	16,005	51.6	
강원	11,000	4,218	38.3	
충북	7,000	3,864	55.2	
충남	15,000	6,826	45.5	
전북	12,000	7,136	59.5	
전남	19,000	8,908	46.9	
경북	25,000	12,777	51.1	
경남	21,000	8,246	39.3	
제주	2,000	810	40.5	
계	220,000	100,727	45.8	

表 7. 1980년 상반기 월경조절술 실적

지역	목표량	상실	반기적
서울	13,600	10,014	
부산	6,300	5,635	
경기	7,600	4,823	
강원	4,300	2,340	
충북	3,000	1,972	
충남	5,800	4,150	
전북	4,600	3,316	
전남	7,900	6,076	
경북	8,100	5,392	
경남	6,900	4,200	
제주	1,900	954	
계	70,000	48,872	

● ● ● 家族計劃토막소식

일본：少子女價值觀의 確立

1974年 出產力 調査 結果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理想子女數는 약 2名이며, 理想子女數의 감소와 더불어 男兒選好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젊은 여성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20~29세 사이의 応答者들 중에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경우에 80퍼센트가, 아들만 둘인 경우에 73퍼센트가, 그리고 딸만 둘인



일본에선 딸만 둘인 경우도 67퍼센트가 단산을 계획한다고 응답했다

경우에는 67퍼센트가 더 이상의 子女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서 子女의 性比나 男兒選好思想이 少子女 價値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4年 調査 당시 추가子女數에 대한 태도를 보면 応答한 有配偶可姪婦人の 73퍼센트가 더 이상 子女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같은 추세는 젊은 여성들에게서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子女가 없는 경우에도 20퍼센트 가량이나 子女를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子女數가 3名以上인 경우에는 97퍼센트라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추가 자녀를 원치 않고 있었다.

1973年에 2.1에 머물던 합계출산력이 1977年에 1.8로 떨어짐으로서 이같은 態度를 강력히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합계출산력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有配偶可姪婦人の 78퍼센트가 避姪 經驗이 있으며 67퍼센트가 現在 避姪實踐者이다.

② 콘돔이 가장 잘 알려진 피임방법이며 먹는 피임약은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더 잘 認知되었다.

③ 1974年 現在 応答婦人們의 理想子女數가 그들人们的 結婚 당시의 理想子女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 당시 평균은 2.6名이며 調査 당시에는 2.2名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료 :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12,

No. 1, 1980.

중앙 아메리카 : 약사를 활용한 피임약제 보급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파테말라」, 「혼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구아」 6개 중앙 아메리카 國家에서 약사를 활용한 피임 보급 정책을 실시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 약사가 의사에 비하여 일반 대중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택된 것이다. 사실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개발도상 국가에 있어서 약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조사에 따르면 약사가 가장 중요한 피임 情報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때때로 이들이 제공하는 情報는 절못된 것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이들 약사를 간단한 훈련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인 家族計劃 情報源 또는 避姦藥劑 普及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77년부터 1979년 사이에 약 3000여명의 약사가 훈련과정을 거쳐 있는데 훈련과목은 기인법, 마켓팅, 動機와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꾸며져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이들 훈련받은 약사를 통한 피임기구 판매가 콘돔 30퍼센트, 먹는피임약 50퍼센트, 그리고 주사피임약은 63퍼센트의 증가 현상을 보였다. 또한 「혼두라스」에서도 훈련받은 약사들은 4개월만에 22퍼센트의 판매 실적 증가를 가져 왔으나 그렇지 않은 약사들은 겨우 2퍼센트의



중앙아메리카의 약사는 가족계획사업에 크게 기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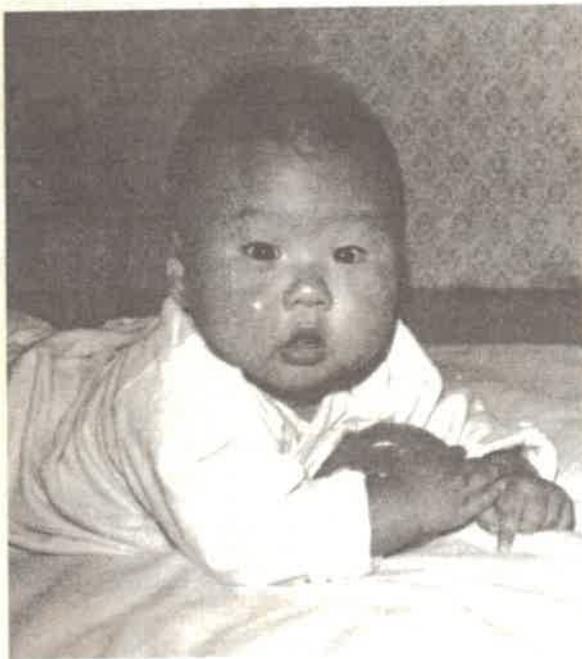
증가를 보였던 것이다.

避姦藥劑 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이들이 비공식적인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보건 및 건강 향상 정책 가능성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 People, Vol. 7, No. 2, 1980.

「스웨덴」: 모유를 적극 勸奨

세계에서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인 「스웨덴」에서는 모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적어도 아기에게 첫이례동안은 모유를 반드시 먹여야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각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가능한한 모든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여야 하며 질병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모유를 먹일 수 없는 부인을 위해서 모유운행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는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강하다

있다.

모유는 우유에 비해서 영양가가 높으며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출산 직후에 나오는 초유는 면역체를 지니고 있어 신생아를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미용상 외관상 등의 이유를 들어 수유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는 이들의 바르지 못한 생각에 대한 경종이라 하겠다.

자료 : *People*, Vol. 7, No. 2, 1980.

먹는피임약이 자궁암 발생률 줄여

미국에서 행해진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始娠과 먹는 避妊娠藥服用이 자궁암의 발생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염밀하게 말하면 雌子의 배란 억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궁암 발생률은 떨어진다 하겠는데, 먹는 피임약은 임신과 마찬가지로 배란 억제의 기능을 갖는다.

「로스엔젤레스」에서 행해진 한 연구는 자궁암을 앓은 경력이 있는 25세에서 29세의 150명의 부인과 이들과 비슷한 건강한 부인 150명의 배란억제 기간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인들의 始娠, 出產, 避妊娠 등 產婦人科的 經歷을 조사하여 배란억제 기간을 계산하며 배란억제 기간에 따라서 자궁암 발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 배란 억제기간이 없었던 상태에서 환자가 29명, 통제집단 18명의 상대적 자궁암 발생비율

을 1.00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보면 배란억제 기간이 3年, 6年, 9年으로 길어짐에 따라 자궁암 발생비율은 0.67, 0.60, 0.38로 감소되고 있었다.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 연구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자료 :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11, No. 6, Nov./Dec., 1980.

태국 : 재로 成長을 위한 30年 計劃

현재 2.0 퍼센트의 人口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태국은 5년 안에 1.5퍼센트, 30년 동안에 0퍼센트로 줄인다는 계획 하에서 가족계획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1974년 전만해도 태국의 人口 增加率은 3.2퍼센트였다.

태국의 가족계획사업의 특징은 地域社會의 자원자인 人的資源을 活用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4년에 地域社會 家族計劃局(Community-Based Family Planning Service)를 설립한 태국은 158개 지역에 16,236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자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 훈련을 시킨 뒤 가족계획 요원으로 활용, 家族計劃에 대한 여러 가지 知識을 마을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필요한 避妊器具를 나눠주고 施術도 일선하는 등 외 役割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같은 결과로 人口 增加率은 5~6년 동안 1.2 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대상의 약 1/3 가량이 이 프로그램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태국의 이 기관은 또한 家族計劃 뿐만 아니라 각종 保健, 醫學에 관한 情報도 마을사람들에게 제 공함으로서 농촌 지역사회的生活 환경을 밝게 하여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 기관은 量的인 확대보다는 實的인 향상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은 투입할 계획이다.

자료 : *Asian-Pacific Population Programme News*, Vol. 8, No. 5, 1979.



태국에서는 어머니회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美國：젊은 여성의 11퍼센트가 자녀를 원치않아

78년 6월에 실시한 人口調查 結果를 보면 18세에서 34세의 美國女性 중 약 11퍼센트가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어서 만약 이같은 태도가 실천에 그대로 옮겨질 경우 미국 人口는 감소될 전망이다.

表에서 상세하게 읽을 수 있는바, 이들 平均 기대자녀수는 2.1名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教育水準別로는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기대자녀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이 大學院 入學 以上인 女性들의 경우는 무려 20퍼센트가 無子女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자료 :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12, No. 1, 1980.

表. 미국 18~34세 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 및 백분율 분포

특성	무자녀를 원하는 비율	평균 기대자녀수
전체	11.2	2.1
연령		
18~19	13.5	2.0
20~21	12.0	2.0
22~24	11.7	2.0
25~29	11.1	2.1
30~34	9.6	2.3
교육수준		
고졸미만	8.0	2.5
고졸	10.1	2.1
대퇴	13.5	2.0
대학	13.5	1.9
대학원 입학이상	20.6	1.7

人口 및 家族計劃 관련 分野의 研究課題紹介

■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課題	완료일자
1. 既婚女性의 超過出產力과 經濟活動	1980年 6月
2. 人工流產의 社會構造的 決定要因分析	1980年 7月
3. 5次 5個年計劃 人口部門	1980年 12月
4. 長期人口預測模型	1981年 4月

■ 韓國行動科學研究所

研究課題	완료일자
1. 子女觀 研究(2次)	1980年 12月
2. 人口의 社會化	1980年 12月
3. 子女研究(社會心理學的側面)	1982年 12月

人口 및 家族計劃 主要統計

圖 1. 年度別 配偶者出產力 指數와 子女數 制限 指數：「스웨덴」과 「대만」

表 1. 年度別 家族計劃 實踐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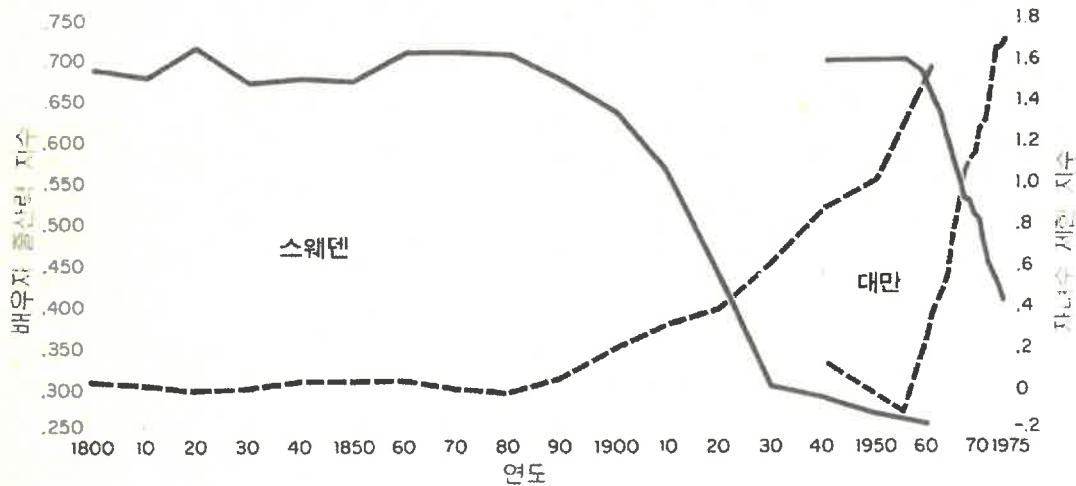
表 2. 避妊實踐婦人の 避妊目的 백분율 분포

表 3. 첫避妊實踐時期 백분율 분포

表 4. 實踐婦人の 避妊方法 백분율 분포

表 5. 地域別 사용 避妊方法 백분율 분포

圖 1. 年度別 配偶者出產力 指數와 子女數制限 指數：「스웨덴」과 「대만」



* 指數 산출은 자료 참조

자료 : *Population Bulletin*, Vol.34, No. 6, February 1980.

圖 1은 「스웨덴」과 대만의 配偶出產力指數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子女數制限 指數*의 變化 樣相을 年度別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하겠다. 하나는 유배우 출산율이 가족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점차 감소되어 안정된 수준으로 정착되어가는 반면 子女數 制限을 나타내는 指數는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장기간에 걸친 先進國의 变천양상을 開發途上國에서는 최단기간에 그대로 추종해가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스웨덴」의 양상은 「유럽」 국가들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配偶者出產力指數가 .700에서 .40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1880年부터 1920年경까지 약 60년이 걸렸으며 子女數制限指數가 0에서 1.6으로 증가하는데는 1980年부터 1960年까지 약 80년이 걸렸다. 1800年代 후반에서 1900年代初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人口抑制가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는 社會·經濟的 發展에서 기인하는 副次的인 社會 현상으로서 이 때 사용된 方法은 성교중절법이나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자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유럽」 국가들의 이같은 양상은 사실 1974年 「부카라스트」 世界人口大會에서 주창되었던 開發이 최고의 避姪器具라는 주장의 歷史的 근거라고 하겠다.

한편 대만의 人口抑制 양상은 開發途上國의 양상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先進國이 장기간에 걸쳐 이룩한 수준을 60년후에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성취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널리 보급된 科學的인 避姪器具와 국가의 강력한 政策的 뒷받침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表 1은 年度別로 避姪實踐率의 變化를 제시한 것이다. 이表에 의하면 1978年 現在 實踐率은 49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70퍼센트가 넘는 선진 여러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연도별로 볼 때는 짧은 기간안에 많은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보면 도시 54퍼센트, 농촌 43퍼센트로 9퍼센트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과거나 現在니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시·농촌간의 차이는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 아직도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表 2는 避姪하는 婦人們의 避姪目的이 무엇인가를 나타낸 것인데 1978年 調查結果에 의하면 斷產이 實踐婦人の 91.9 퍼센트로 1976年 79.7퍼센트에 비해 증가됐으며 터울조절을 위해 避姪을 實踐하는 婦人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結果는 난관및 정관이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피임 수단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實踐者가 증가하고 있는데서도 어느정도 그 理由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첫 避姪을 實踐하는 時期에서도 어느정도 避姪目的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表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 피임을 실시했다는 부인이 1973年 調査엔 85퍼센트, 1978年에는 77퍼센트로 73년에 비해 일찍 피임을 시작하는 부인의 비율이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希望子女數가 줄어듬으로 해서 생긴 결과이지 터울조절을 위해서 일찍 避姪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20퍼센트의 婦人이 첫아이를 갖기 전에 이미 避姪을 實踐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日本의 避姪양상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터울調節에 그 목적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表 4는 實踐婦人們의 避姪方法을 살펴 본 것인데 1976年 調査 당시와 1978年度 結果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난관시술이다. 난관은 1976年만 해도 총 實踐者의 9.3퍼센트로서 科學的인 方法 중에서 가장 낮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년 뒤에는 22.4퍼센트로

表 1. 年度別 避姪實踐率: 도시와 농촌

연도	도시	농촌	전국
1964	19	8	9
1967	26	17	20
1971	27	23	25
1973	39	34	36
1976	48	40	44
1978	54	43	49

表 2. 避姪 實踐 부인의 避姪目的 백분율분포

목적	1976	1978
단산	79.7	91.9
터조절	14.9	6.2
기타	5.4	1.9
계	100.0	100.0

表 3. 첫避姪 實踐 時期 백분율 분포

시기	한국		일본 1975
	1973	1978	
결혼 후 첫 분만전	3	5	20
첫 분만후 둘째 분만전	12	18	35
둘째 분만후 셋째 분만전	21	24	28
세번째 분만후	64	53	17
계	100	100	100

表 4. 實踐婦人の 피임방법 백분율 분포

방 법	1976	1978
먹 는 피 임 약	17.6	13.4
콘 봄	14.3	11.8
루 우 프	23.8	19.6
정 관	9.5	11.4
난 관	9.3	22.4
주 기 법	16.1	11.4
기 타	9.5	9.9
계	100.0	99.9

表 5. 지역별 사용 피임방법 백분율 분포

방 법	1978	
	도 시	농 촌
먹 는 피 임 약	12.2	15.5
콘 봄	14.4	8.0
루 우 프	13.1	30.0
정 관	12.5	9.6
난 관	25.5	17.1
주 기 법	13.1	8.7
기 타	9.2	11.0
계	100.0	99.9

가장 높은 비중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관의 경우도 약간의 증가를 보여 감소 현상을 나타내는 먹는피임약, 콘돔, 루우프에 비해서 영구 피임법인 불임술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는 實踐婦人の 避姪方法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1978년도 당시 도시에서는 난관, 정관, 콘돔과 주기법이 농촌에 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에서는 루우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避姪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農村地域에서의 영구피임법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홍보계몽 교육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行事日誌

日 時	主 催 機 關	場 所	行 事 內 容
5月—6月	한국행복한가정운동협의회	서울	근로자를 위한 성교육
6月 24日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	언론인 간담회
7月 9日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	시·도 지부장회의
7月 11日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	농촌가족계획협력사업 연례평가회의
7月 11日	가족계획연구원	서울	중앙사업담당자회의
7月23日—26日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	어린이집교사교육
9月 10日	아세아정책연구원	서울	제 7 차인구정책세미나
9月 16日	가족계획연구원	서울	제 3 차인구정보관리실 무자회의
10月 3日—4日	대한의학협회	서울	제 8 회 법의학세미나
10月 7日	대한불임시술협회	서울	불임시술의사교육
10月13日～18日	대한국토계획학회 서울특별시	서울	2000년대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가족계획연구원